巡査의말못할暴行을
주재소장이하가공모비호
싸닭업시학생모자를란타

강릉군성산면구산리경찰관주재소(江陵郡城山面邱山里警察官駐在所)에서는 이월이십이일밤열시경에 순사가학생을 싸닭업시 구타한일로 강릉경찰과교육긔관과의 충돌을본사건이 이러낫다 이제그원인되는 사실을보도하건대 그주재소순사 홍윤석(洪允錫)이가 그동리 음식뎜영업하는 황유주(黃惟柱)의 집에 술을먹으려가서그주인 황유주에게『이위 음식뎜영업하는림영범(林永範)의집에 뎨천(堤川)서온 젊은녀자 가잇스니 …

妖怪輩「훔치」聲討
馬山에서大盛況
경찰의삼엄한경계하에 요괴배죄상을일일이적발

正敎部長을唾罵

주린쇠테 대구국먹고참사
하도배가곱하내버린대구를먹고 한사람이죽고네식구는명재위독

… 부자의 권답(田畓)을 어더부쳐서 여간남는것은 소작료로부자에게 다빼앗기고 그남어지얼마식되는것은 세권에 양식에드려가고세후부터는먹을것이업서서

도처에서 죽겟다는비참

한소리가 이러나는바 경주군경주면서악리 김장섭(慶州郡慶州面西岳里金璋燮)(六一)은 본래부터무산자의집가뎡에 태여나서 륙십년동안이나 남의소작인이되야 날마다 부자의학대만밧고하로도자미스러운생활을하지못하고 눈물과한숨으로 슬하의어린자식들과 처를다리고 근근히그날그날의 생활을하야 오든바 작년에도 남의논닷마지기(五斗落)를 어더서 부쳣스나소작료를 제하고는 남는것이업슴으로 먹을것이 업서서륙십이넘은 로인은처자들과함께 주린창자를 훔커쥐고 남모르게눈물로 한집안식구가 서로서로위로하면서 지나오든바 지나간이일에도 아츰에 좁쌀죽을조곰어더먹고 차디찬설통에도 밥에불을째지 못하엿슴으로 그날도 큰바람이 부럿스나치운 로주린창자이라조곰도다른생각을할 여디가업시 하도배가곱하 그고기를 깃부게 주어다가국을 쑤려서 좁쌀밥에 마라서저녁밥을그의처 신임순(申任順)(四六) 자부 도두리(都斗理)(三八) 큰딸 김봉순(金鳳順)(一九) 세살먹은 손자와함께 다섯식구가 맛잇게먹엇스나 불과 십분이지나지못하야서 권긔김장섭은 그자리에서 긔운이진하야 토하지를못한까닭에

즉사하고 네식구는중독

이되야 다죽어가는것을 경주읍의생김용석(醫生金容錫)씨의치료를바다 생명은구하엿스나 원래업는집이라 그이튼날도 권긔김장섭의처는 이러나지 못하야드러누엇고 그외는 부친의시톄를쓰러안고우는양은참아보지못하겟다는바그동리사람의말을드르면 자세히는알수업스나 대구알은누구나다먹는것인데아마엇더한자의 소위인지는 알수업스나 산츰생을잡으려고 대구속에독약을너허서 산에둔것을 갓다먹고그와가티된것인듯하다더라

間島와同胞의生活 (十)
在間島 一記者

暴行事件頻頻으로
귀족원에서정부에경고

근래에 자조이러나는 폭력단데에서 가등수상(加藤首相)약규내상(若槻內相)판창승헌(板倉勝憲)자작커등을습격하는등사태가 자못중대하야 이러케하여서는 의원(議員)의 발언자유가 구속되고또는 신변의위험을 감하게된다는 리유로서귀족원각파는 오일에 긴급회의를열고취데에대하야정부에경고를발하엿다더라

警視廳에서도
취데방침밀의

폭행사건이자조이러남에대하야경시텽(警視廳)에서도사태가위급함을 알고 태전총감(太田總監) 이하간부는오일에회의를열고 철뎌덕취데방법을 밀의하엿다더라(동경뎐보)

藏相邸에도
장한이습격

오일아츰에빈구장상(濱口藏相)의집에 한명의괴한이 나타나서조선 함경렬도부설속성에 대하야 장상에게 면회할것이잇다고 하는것을 가인이거절하매 즉시불온한행동을하고자할지음에급보를접한고뎐서(高田署)원이현장에서검거하야본서로인치취됴중이라더라(동경뎐보)

乘務員又解雇
데삼차로해고된승무원
京電爭議의續報
삼백명은이미취업햇다

오일오후에 또승무원 열명을해고하엿다함은 별항과 갓거니와 회사측에서 륙일 아츰에 승무원고수봉(高壽奉)강순명(姜順明)외삼십여명을 또해고시킬려이라는데 그성명은 시간관계로아직비밀에부친다더라

今朝에는三十名
고수봉、강순명외삼십여명

동맹파업을계속하든뎐차승무원들중 십이명이 해고를당하고삼십여명이사표를 데출 하엿스며그반면에는 이백여명이 취업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회사측으로부터 통고를바든 승무원들은 그뎡각인오일 오후두시까지에 또백여명이 취업하여서도합취업한승무원이삼백여명에달하엿다더라

威脅手段인가
희생된승무원

회사측에서는 오일오후에 또정책인지 위협인지 알바아니나데 삼차로 승무원열명을 또해고하엿다는데 그성명은 다음과갓다 ▲崔德用▲辛永直▲盧棟周▲李相珍▲安泰鉉▲姜永德▲金鳳來▲趙甲釗▲文鍾奎▲表吉同

今朝結末
의견들어서 처리한다고
武者專務談

이미 취업한승무원이 삼백여명이고 동고의뎡각인 오일오후두시가지나도록 파업을 계속중인승무원이 백여명이라는데 이에대하야 무자전무(武者專務)는말하되 오일오후에는 거의다취업을 한모양이외다 아직취업치 아니한 승무원도 얼마간잇는모양이나 그들중에는 부득이한 사고로 못온사람도 만흘터이오 그대로아니오는 사람도만흘줄로 압니다 그러나그중에는 시외사람들이 대부분임으로 륙일아츰에는 대개전부 취업할줄로 압니다 만일륙일아츰이지나도록취업치아니하면각각 불러다가 그의견을드러 가지고 처리하랴함니다 해고식히는것이목뎍이아닌 이상그들의 부득이한사정이 잇서서 못온것을덥허노코 해고는 하랴고안슴니다 하더라

許晃外二十名
오일밤밀의

승무원과회사간에 쟁의가 처음생길쌔에 부터 대표교섭위원으로활동하여오든 김영수(金永懿) 허황(許晃)맹봉긔(孟奉基)씨등이십여명을동대문경찰서에서검거하랴고방금로력중이나그들은 교묘히종적을 피하는고로 검거할길이 업다는데 탐문한바에 의지하면 오일밤〇〇문밧모처에서 그대표들이 비밀히모혀서 무슨의론을한다는 소문이잇더라

故宋秉畯의 鐵原作人
소작권이동으로 수백소작인공황

강원도텰원군(江原道鐵原郡)내에잇는 서울 고송병준토디를경작하는 소작인수백명은 지난일월이래로 큰공황중에 지낸다는바 드른바에의하건대 당디에산재한 권긔송병준의토디는 수백뎡보로 소작인수백명이 경작하야오든바 엇더한리유로인지 지난일월분에 이권사음허달(許達)이란사람을떼고현재경긔도김포군(京畿金浦郡)에재근하는리긔련(李起練)이란자로사음을식히엿다는바 권긔 리긔련이는멀리 김포에잇슴으로 텰원읍내에잇는 몃사람에게의탁하야 수백명소작인에게일일제히소작권해제통지를발부한후자긔압헤와서아첨이나잘하는자에게는소작권을도로주고그러치안은자에게는그소작권을빼여자긔혹은자긔의친한친구들의 친척또는 아첨을하는자들에게 주엇다는데 이로인하야 안정하든 텰원일대에도장차 소작쟁의가 이러날념려가업지안타하며 권긔사음 리긔련외에 몃사람은당디에서 큰욕구력이가 되엿다하며 리긔련이세력을 부리게됨으로 그덕을입고자하야 자긔의사랑하는 딸을리씨의애첩으로 주고자한다는 풍설까지잇서 그자는더욱 미움을 … 매우분주한모양이라더라(텰원)

全州湖英學校
高等科設置
개인의사회사업으로 경영인호영학교확장

전주(全州) 시내에학교의수효가 만타하지마는 개인경영은김순희(金駿熙) 씨가 경영하는 호영학교가 잇슬뿐인데 지금와지는보통과와 중등과를 두엇던바 중등과는아즉 설비도불완전할뿐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그다지요구하지아니함으로보통과는 전과가티 경영하고중등과만림시로중지하고새로히고등과를설치하야 보통학교를 마티고계속하야상급학교를가지못할 일반생도를위하야특히보습교육에 힘을쓰겟다하며 금년부터는 일층확장하야 생도를 전보다더만히수용한다더라(전주)

電車轢兒
여섯살먹은애를 안감천부근에서

작일오후 여섯시에운전수 허남(許楠)이가운전하든일백구호뎐차가 동대문밧 안감천(安甘川)압헤서 그동리 구십이번디사는 여섯살먹은 조봉환을치어 중상케하엿다더라

三百鑛夫의慘狀
선천삼덕광산광부의참경

평남성천군삼덕면신덕리구보삼덕광산(成川郡三德面新德里久保三德鑛山)은 지금으로부터팔년전인 대정륙년에 개광한이후성적이 매우조와일시는 광부가삼사천명에 달하든곳으로 지금도 권조선굴지의 대광산으로일홈이잇는바 그광산의 현재광부수는 삼백명가량으로 권히소규모로 경영하여오는바 광부의대우가조치못하야 매우 비난을밧는모양인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드르면

同盟罷業無効
단결이업서서

너무나억울하고 슬픈정경을 광주에게 하소연한적도 몃번이다그럼으로 작년어느쌔는 동맹파업까지하야 대우개선을 요구하엿스나 그것도결국은 무효가되고 여역시그전과가티학대에그날그날을지내고잇는현상이다

近處有志憤慨
광부에동정

이에대하야 그곳일반유지측에서도광부들의 참상을 살펴보고광주에게 여러번충고도 하엿다하나아모효험이업고 역시 전과가티지내고잇스며 데일심한것은

高利貸金까지
흡혈귀일인서긔

광산사무소에서긔로잇는일본인 모(某)란자는 광부에게 월일할의 고리대금까지하야 얼마타지못하는 그들의돈에서 변까지쓰더먹는 흡혈귀(吸血鬼)가 잇다고한다 그럼으로 그들의참생활은 붓으로 다긔록지못하겟다더라(성천)

醴泉唯一學院
존폐의문데로
디방인사분긔

긔보와가티 례천불교 유일학원(醴泉佛敎唯一學院)은 년긔본금이업시 김룡본말사(金龍本末寺)후원과학원당국자의열성으로지금까지 경영하야 오든바 대정십사년도(大正十四年度)부터는 유지할방책이돈무하야 지난달오일 김룡본말사 년시총회(年始總會)를 리용하야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고 동시에위원(委員)까지 파송하엿든바 뜻 … [illegible] 篤)씨의 입회하에 학원경영에대한방침을 토의하게되여 먼저원장김석희(金碩熙)씨가위원파송한전말과 학원의 경과보고가 잇슨후에 학감정종덕(鄭鍾德)씨로부터 아홉가지조건의안(建案)을 랑독함으로 이것을 듯는회무위원은물론 입회한 군수 서장까지 흥분케되여 잠시동안은 장내의 공긔가 긴장한빗을띄엇다 그리자 좌중에서 최동명(崔東鳴)씨가 우리도 디방관념이 업는바는 아니고 또전군수쌔부터현군수까지자긔네들을 간간이 불너다가례컨디 학교사업에대하야무엇이든지잘하여가라는명령이 잇섯스나 으로그러타 하여간 이자리에서엇더한 방침을하든지 결말을짓고 고커한다하매 학무위원 리대일(李大一)씨로부터 이학원은 례천포교당이 잇기쌔문에 학원이생긴것이오 학원이 잇기쌔문에 불교의발전은 스스로 되는것이라하야 장시간토의하고 구데안은 오는구일로미두고 오후두시에 폐회하엿다더라(례천)

校長까지도
不法監禁
리유는말안해

별항보도한 강릉군성산면 구산리 주재소사건(邱山里駐在所事件)은■그후에이르러점점확대되여경찰계와교육계간에중대한문제가되엿는데그내용인즉 짜닭업시 구타당한학생의 모교인성산(城山) 공립보통학교의 교장삼뎐설사랑(森田雪四郞) 씨가

자긔학생

이까닭업시주재소순사에게구타당하엿다는소식을듯고 이러한자미스럽지 못한일이 발생된것은 자긔의커다로 방관할수업다하야 될수잇는대로 타협하기위하야 이월이십오일오후여섯시경에그주재소를 방문하고 주재소장광겸(廣兼)과순사도변우일랑(渡邊右一郞)과홍윤석(洪允錫)과(張 … 순사가 잇는곳에서 그문데에대하야 선후책을타협하랴 할쌔에 부장광겸은말도 듯지안코 그커몸을다함으로삼뎐교장은그대로

주재소를

나오랴고이러서 문을열고나오랴할쌔도변순사외여러순사가돌면히삼뎐교장의 두손목을쥐여 강제뎍으로끌고드러와서 금속(檢束)이란일홈아래에 교장을 류치장(留置場)에 잡어너코말엇다이에그

현장에서

이사실을본여러학생이 금보통학교에 통지한즉 그학교교사인 김봉주(金奉周)김백수(金百洙)량씨가 현장에이르러 교장이 무슨죄와엇더 …

마친후 삼백명의 학생들은구산주재소에이르러대표자삼인을선거하야 부장광겸에게 질문코저하엿스나 그쌔에마츰 부장광겸이업섯슴으로 일순사 도변우일랑(渡邊右一郞)에게『엇지하야우리교장을 까닭업시 구금류치하엿스며 무슨죄명이냐』고강경히 질문한즉 도변순사는 사소한사건이 아니기에 자긔단독으로는 말하기가 어렵다하야 말하기를 피하엿다한다

學父兄도
대회를열엇다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이러나자 학부형들은 이월이십팔일에 성산학교안에서 군수와서장의 감시하에경찰의불법을통론하고 아래의 세건에대하야 의론하엿는데 그세건은

一、本校地位及名譽復舊의件
一、本校長受辱에對한雪恥及名譽復舊의件
一、本校學友無故毆打한警官에對한處置의件

등을토의한후만행순사와순사부장의처치를당국에강경히요구하기로하고폐회하엿다더라(강릉)

十二時間勞働
종가리부러먹는 자본가의몰인정
賃金僅五十錢

學生全部盟休
학교데이지계속

延禧誌押收

시외연희전문학교학생의 손으로 발행하려든 잡지연희(延禧)는 당국에서 발매금지를하엿슴으로 림시호를발행하리라더라

휘파람

▲졸업시긔가되니경향각권문、중학、소학에서수업는졸업생이쏘다저나온다▲졸업장을바다들고나오는어린뷰사들이여그대네의졸업장한장에그대네의부모네의피쌈이 얼마나엉기엇는지아는가▲또그대네들이발을내듸되려는사회는 황량하고 긔막히는가시밧이다 과거를회고하고 장래를생각할쌔 가슴에이러나는 감회가 무엇인가

希望의첫길에
시내각중등교의졸업식

…는모호한 리유로 절대금지를식힘으로도 수삼차질느은 잇섯스나 엇지할수업시중지를한후이어

실행조건

을같의하게되엿스나 흥분된군중의 압헤서는 위험하다는 리유로이역시 금지를식히며 실행위원조차 선거치 …

一、虛職을豫寶함
一、奸譎한文字로敎理를삼어歷史的現實됨의民을誣하며世를惑함
一、現下社會의敵視하는各派聯盟과結托하야그敵視의根本條件을中央과地方에서公然히巡 …

◇사진설명=경신학교우등졸업생향하야우로부터변재성(卞在成)군과리준철(李俊喆)군

애끗는惜別歌
경신졸업십오명
시내련지동경신학교(儆新學校)

는당국의 지뎡을어든후 첫회의졸업식을 오일오후세시부터 동교강당에서열고 열다섯명에게졸업증서를 수여한후 특히오년동안 학교마다우등의 성적으로오다가 금번에우등으로 졸업한변재성(卞在成)리준철(李俊喆)량군에게 도지사의 상품수여와 기외상품을 수여한후 『가노라』『가시요』라는애끗는재학생과 졸업생의 석별가가잇슨후 동교설립자『께일』박사를비롯하야 관변과 월반래빈의간곡한 축사가잇섯고 졸업생중변재성군의 답사로 식은원만히마치엇는데 졸업생중 변재성군은수원고농에추천되엿고리준철군외네명은『세부란스』의전에、『수원고농』에두명、고공에한명、경의예과에세명이각각지원하얏스며기타는가업과상급학교에지원하엿더라

女子學院卒業
모다이십이명

시내다옥뎡 녀자고등학원(女子學院) 뎨일회졸업식은 오일오후칠시상동(尙洞) 례배당에서열리엇는데금년의 졸업생은 이십이명이오 그중에우등생은 김자순(金子順)김경희(金慶熙)양외네명이요그들중 세명은 숙명(淑明)녀자고보이년급에뎐학되고세명은동교일년급에뎐학한다하며네개가이와가티리화(梨花)와뎡신(貞信)등녀학교에 각각뎐학한다더라

애매한權大一
호텔「주인」무고로
경찰에게잡혀섯다

지난달이십일에경성호텔에서식가를내지안코 도망치려다가 본뎡서원에게검거되엿다든대구부삼립뎡(大邱府三笠町)오십일번디사는권대일(權大一)은구호텔주인의무고로판명되여마츰내무사히방면되고그호텔주인은경찰서에 시말서를 데출하엿다더라

京俱撤廢로
市民大會
인천에서

리뎡총대의발긔로 인취(仁取) 중매점 경성구락부(俱樂部)철폐문뎨는년래의숙제이엿던바 얼마전에 총독부당국에서 인취중매점에대하야 범뎡 … 철폐문뎨에 대하야 인천시내 각리정총대(里町總代)와기타유지의 발긔로 인천시민대회(仁川市民大會)를열고시위적운동을 하고자준비중이던바 권긔 발긔인들은지난사일 하오다섯시에 중화 …로결정하고취지서와강령등을통과하엿다는데 동시민대회 에서결의한사항은아래와갓다더라

一、대회개최취지설명
二、취지와강령통과
三、임원선거
四、대회비용에관한건

정든대궐을뒤두고
몰려나오는내인들
리왕지행정정리에도태되는
리면에숨은여러가지비극!

리왕직(李王職)의행정정리(行政整理)이야기는 일즉이본보에 보도한바가 잇섯든것과가티 현재리왕직 직원총수 일천팔백명중에서 고등관으로부터 고용에이르기까지 약이할(二割)을 (整理案)을가지고 일본 동경궁내성(宮內省)에출장중이든리왕직 산본(山本)속이 삼일밤에귀경하야 수삼일안으로 정식발표가잇슬터임으로 이 정리발표가되는날에는 약이백명이라는 리왕직식구가 늙집만흔가승을 안고 넷대궐문을나올것이다 그런데 그이백여명중에는한참낭년에 거드려거리든녀관(女官)일곱명이 가을바람에떠러지는락엽가티 일조일석에 도태를당하고 물결놉흔세상바다로 밀려나오게될것이다

×

리왕직에잇는 내인은현재 륙십오명이잇는데 그들중에는 고등관 대우밧는 내인의두종류가 잇다 그런데이번에도태되는일곱명의 내인속에는림영원(林永元)(八〇)이라는 팔십이나되는내인과 양혜안당(梁惠安堂)(六六)이라는칠십이 넘은 내인이잇다 그들은나희십삼사세쌔어려서겨우부모의겻흘 떠나랴말랴할 소녀시대에궁중으로 드러가서 칠십이넘는오늘날까지 륙칠십년동안을 궁중치닥거리에 진심을쎠오다가하로아츰에 대궐을 뒤에두고나오게된 사람들이다 두사람이다ー이제까지 고등관 대우밧든사람으로 림영원은 일백여원이라는돈을월봉으로바더왓스며양혜안당은 매월팔십이원을 바더왓다는데그중에 양혜안당은 지금으로부터삼십일년전에 도라가신고종태황뎨의 총애를가장 만히밧든사람이라는데 이번도태의 소식을듯기전이삼월전에커세상으로떠낫다한다

이번에도

태되는내인으로 판님권대우밧는 사람에 다섯사람이잇는데 그들의 일홈을 긔록하면아래와갓다

安昌吉(八二)金天鉉(三三)李興昌(八四)趙昌順(八八)邊福童(三三)

이중에김옥현、변복동、두내인은지금덕혜옹주(德惠翁主)의 어려서부터 유모이엿다한다 세월이가고 세상이변하야 당년의영화는꿈결가티 사라지고 추풍부는대궐은 감상의 눈물에커젓서라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쌔까지남자를대하지아니한

처녀들이

라대궐문을나선데야 남편이잇스랴 자손이잇스랴 남은텬디는모다가 눈물과적막의 재료가될뿐이다 행인지불행인지 이도태소문을 듯기전에커승길을밟는양혜안당만은그의령혼이영원히 고종태황뎨를모시려가고말앗다 웃는것은 재축하는비밀이 오락가락하니삼십년전에피든쏫은다시피혀마는그에게는다시올봄이영원히업섯다

連理枝 (33)
소요산인
고독의행복

이불행한 청년은 흥분에못익여세상물정에 외은나에게 자긔고통을 위로밧기 위하야차커오는일이만엇다

나는전에도 말슴한것과 가티 여긔서 시오리 가량되는장산골작이 세내가에 살어잇다처자도업고고독한생활을하고잇섯다

의뜻이상합하는 이생의 동모가될 안해를 갓게됨은인간에듬은행복이 되려니와 그럿으로는고독하게 사는것이 의심업시인생의데일 행복스러운 경우가될것이다 여러가지 사정으로빈

그럼으로 나는 인간사회와는 써러저서산다 나는 사회를위하라고는하엿스나 사회편에서 나를쏘첫다 나는구라파의 대부분과「아메리카」와「아프리카」의대부분을 발섭한후에 이 인러이듬은 섬속에서 살기로 작뎡하엿다 온화한긔후와 인긔척이업는 황야가 마음에든까닭이엇다 숲속나무그늘에지은 오도막한간과 손소 개척한 조고마한토디와 집압헤흐르는 세줄기가 충분히 나를깃부게도하고 나에게필요한것을 넉넉히대여주기도한다 이절거옴 이외에는 더조흔사람되는길을 가르치는멧권의 조흔서적 보기가집거옴이다 나를번인 세상조차도 이러한책을 거처서 나의행복을 도와준다 서적은 내눈압헤다욕심을위하야 불행하게된 이들의 형용을펴노아주는고로 그사람들과 나의운명을 비교하여보게된다 파선당한쌔에 바위돌에귀어올나 살어난사람커럼 나는내몸의고독한 생활로부터 다른쌔계의 사나운풍파로 구경한다 나의안식까지도 멀니서 들녀오는풍파소리에 일층 가치가놉하다 내가벗서부터 자긔의밟어가는길에서 다른인간들과 마조치지안코 커편에서도 그길어가는길에서 나와마조치지 안케된뒤로부터는 나는다시 그네를미워하지 안는다 다만가엽게녀길뿐이다